

# 낙농전업농 육성과 경쟁력 강화

## 1. 최근 낙농업의 동향

1997년말에 있었던 외환위기는 우리 낙농업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환율 폭등으로 배합사료, 동물약품 등 생산요소 가격이 인상되어 낙농 경영비가 30%이상 상승하였다.

1998년 1월초의 원유가격이 인상되어 겉으로 보기에는 경영비 상승으로 인한 낙농가의 소득 감소분을 일부 보전한 것처럼 보였다.

그렇지만 IMF 관리체제가 본격화된 3~4월에 유제품의 소비자가격이 인상되고,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지출의 감소로 우유의 소비는 10%이상 감소되어 분유재고 적체라는 문제가 야기되었다. 이러한 부담은 결국 낙농가에게 유대체불이라는 형태로 전가되어 낙농경영의 어려움이 컸다.

낙농가들의 사육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규모별 사육두수의 조정이 가속화되었다. 송아지가격이 바닥세를 기록하여 부산물 판매에 의한 소득에 의존하던 소규모 낙농가가 많이 줄어드는 현상을 보였다.

현재 다소 가격이 회복되었지만 앞으로 이전처럼 낙농소득의 일부를 부산물 판매에 의존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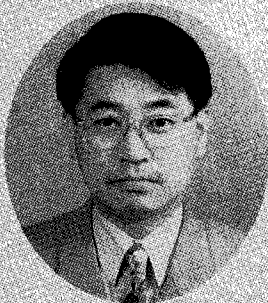
1999년은 새로이 낙농진흥회가 출범하는 해이다. 낙농진흥회에서 선진낙농국에서와 같이 원유수급정책으로 계획생산제도 시행을 검토하고 있지만 그 시행시기에 관해서는 다소 이견이 있다.

1998년도와 같이 소비가 줄어들어 생산이 감축되어야 할 시기에 계획생산제도를 시행하면 낙농가의 소득 감소를 가져와 낙농진흥회 참여율을 낮출 우려가 있으며, 강행할 경우에는 참여율이 낮아져 낙농진흥회의 수급조절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원유의 수급을 안정시키려 할 경우 수요의 획기적인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워 결국 사육두수의 조절을 통한 계획생산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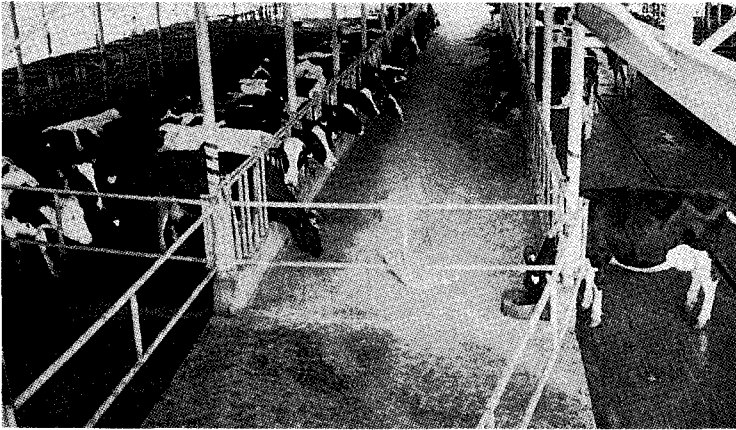
사육두수의 인위적 조절은 낙농전업농의 규모 확대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나아가서 낙농가는 실질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원유 가격의 인상을 요구할 소지가 있으며 결국 시유가격을 높이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대외적으로는 유제품시장의 개방으로 값싼 유제품의 수입이 점차 확대되고, 우리나라 유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미약하여



신 승 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지금까지 유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던 가공용 원유는 불가피하게 음용으로 전환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유제품 수입량이 1995년보다 1996년에는 모조분유를 중심으로 2.4배나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1997년 3월 모조분유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하여 2001년까지 수입량이 제한되게 되었다.

그런데 1998년 7월 유럽연합의 요청으로 WTO 분쟁해결기구에 패널이 설치되어 1999년 4월 최종 보고서에 의해 세이프가드를 계속 적용할 지에 대해 판정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수입제한 조치가 끝나거나 철회될 경우 값싼 모조분유 및 유제품의 수입량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2. 낙농전업농 육성정책의 성과

지난 1992년부터 실시된 젖소경쟁력제고사업은 가족노동형 전업낙농가를 집중 육성하여 낙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정책이었으며, 1994년의 WTO 체제 출범에 대응하는 축산업경쟁력 제고대책

에서는 낙농전업농의 규모를 30두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매년 500호수준에 대하여 기반 조성, 축사시설 및 급이·급수기 등 장비의 자동화를 통하여 노동력을 절감하는 전업농 육성프로그램을 추진하여 2001년까지 1만호의 낙농전업농을 육성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전업농이 3호이상 참여하여 낙농단지를 조성할 경우 지원하는 축산단지조성사업도 추진하였다.

정부의 지원사업에 힘입어 낙농전업농의 규모는 빠르게 확대되었다. 젖소 사육 규모는 50두이상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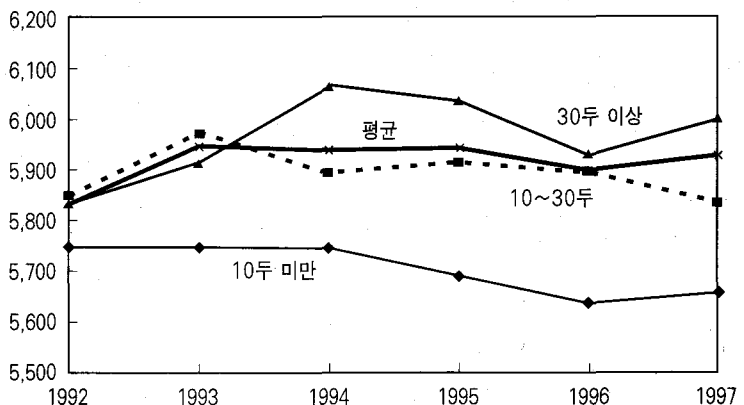
사육하는 전업농의 수가 1992~97년 6년동안 약 3.7배 증가하여 낙농부문의 규모화가 한우부문에 비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었다.

1997년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대한 중간평가에서는 한계사육농가의 타업종 전업으로 규모화의 진척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나 사육규모 증대에 따라 두당 토지면적과 축사면적이 감소하여 사육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현 수준의 규모화속도가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었다.

젖소 사육농가수는 1997년 12월 1만 7,400호에서 1998년 12월 1만 5,700호로 감소하였는데, 특히 50두 미만 사육농가는 계속 감소하고 100두 이상 농가 규모는 다소 증가하여 호당 평균 사육두수는 30두에서 34두로 증가하였다.

최근의 전업농의 규모화 추세를 유지할 경우 2004년에 가서 50두 이상을 사육하는 전업농이 5,000호로 육성하여 전업농의 사육두수 비중이 전체사육두수의 50%를 차지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2004

〈그림 1〉 낙농규모별 두당산유량, 1992~1997



\* 자료: 축협중앙회, 축산물생산비조사보고

년에는 전업농의 소득을 40~45 백만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젓소경쟁력강화사업으로 규모화된 전업낙농가에서 평균사육농가보다 생산비 절감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우유kg당 생산비는 1992~97년 사이에 평균사육농가의 경우 18% 증가하였으나 10~30두 규모이상의 농가보다 30두이상의 농가가 생산비를 9.1%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두당 산유량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5~96년 동안은 평균적으로 산유량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1996년 30두이상의 규모에서는 1.8%나 감소하였다.

1992년이후 1997년까지 평균 산유량의 증가율은 매우 완만하여 규모화에 비해서 젓소개량에 의한 산유량 증가는 매우 미흡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8,382kg, 일본의 8,130kg보다 산유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3. 낙농전업농의 경쟁력 강화 방안

앞으로 정부는 전업농의 규모화와 시설현대화 등에 정책자금을 지속적으로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부업농의 경우 자구노력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게 되어 낙농부문은 한계농들의 퇴출과 가족전업농들의 꾸준한 증가로 빠른 규모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평균규모이하의 낙농가의 경우

낙농전업농은 앞으로 사육두수의 확대보다는 고품질의 원유 생산과 산유능력의 향상, 생산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생산기반의 확충을 통하여 소득을 증대하여야만 전업낙농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는 보다 내실있는 낙농전업농의 소득 증대를 위한 경쟁력제고사업이 필요한 시기인 것이다.

전업낙농가들도 정부의 정책 지원에 의존하여 외형적인 규모화에 치중된 무리한 투자로 부실 낙농가로 전락되지 말고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경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는 생산비 상승으로 인한 두당 소득률이 1997년도의 34%에서 1998년에는 29%이하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되어 소득감소를 사육두수로 보충하기 위해 사육두수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미 규모화된 전업낙농가들의 경우는 낙농부지와 사료포의 확보가 어려워 규모 확대를 통한 소득의 향상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낙농전업농은 고품질의 원유를 생산하여 높은 위생등급과 성분등급의 가격인센티브로 소득을 높여야 한다. 향후 우리나라의 원유성분에 의한 유가제도가 선진낙농국과 같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낙농가들은 이를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저칼로리를 선호하는 소비자의 식생활 패턴에 맞추어 기능성 유

제품 판매가 신장될 것으로 보여 현행 유지방뿐만 아니라 단백질 또는 무지고형분에 의한 성분등급 및 가격체계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낙농가들은 성분등급체계에서 부합되는 사양관리를 통하여 높은 원유수취가격으로 소득을 향상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산유능력의 향상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농가와 산유능력 검정농가와의 차이는 점차 커지고 있다. 1990년 검정농가는 일반농가보다 15%, 1994년 17%, 1996년 18%의 산유량 증대 결과를 가져와 검정사업 참여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우유 농가실태조사에 따르면 1997년 검정목장수가 전년대비 23%가 증가되어 검정기록의

<표 1> 일반농가와 검정농가 연간 산유량 차이(kg/두)

년 도	1980	1985	1990	1994	1996
일반농가	4,494	4,681	5,363	5,729	5,959
검정농가	4,957	5,412	6,176	6,736	7,038

\* 자료: 축협중앙회 젓소개량부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40두 규모이상의 전업농 참여율이 가장 높아 46.7%로 나타났으나 이는 선진낙농국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이므로 전업농들 검정사업에 보다 적극 참여하여 산유량을 증대하여야 할 것이다.

낙농가의 소득 증대는 두당 생산량, 규모화에 따른 생산비 절감 등 규모확대에 의한 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원유의 품질 고급화에 의하여 추가 소득의 확보가 가능한데 이의 뒷받침이 되어야 할 지도 및 검정사업의 피드백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우유 생산비가 높은 원인은 여러 가지가 들 수 있다. 첫째, 규모확대와 더불어 기계화·자동화가 수반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당 노동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두당 노동력 투하시간이 연간 234시간 소요되고 있으나, 선진국의 경우 120시간 내외이다.

또한, 낙농 시설·기계의 자동화는 최근의 인력난, 인건비 상승, 목장 경영의 규모화 및 체계적인 사

양관리 차원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다.

둘째, 3D 현상의 만연으로 농촌에 일손이 부족하게 되어 인건비가 크게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에 의해 영세한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시설 자금을 투자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따라서 생산비는 상승되는 악순환을 낳게 된 것으로 보인다.

원유 생산비용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사료비(37%), 노동비(30%), 자가자본이자(9%), 감가상각비(14%)로, 사료비, 자가자본이자, 감가상각비, 자가노력비는 해가 거듭됨에 따라 그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인 것은 일손 부족에 의해 초래되는 비효율적 사양의 단면을 나타내 준다.

셋째, 조사료 이용이 부진하고 농후사료 이용도가 높아 생산성이 저하되었기 때문이다. 낙농가들은 1998년도 고환율에 따른 조사료의 중요성을 경험하였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 생산 조사료의 생산비용은 배합사료에 비해 높지 않으며 사료가치는 높은 수준이다. 조사료 생산 비용

의 절감은 일정토지와 기계화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는 낙농 전업농가들이 사료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기계화단지를 육성하고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조사료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조사료 기계 및 장비를 공동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겨울철 유희논의 보리 답리작재배는 사료작물로서 호밀을 능가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적극적으로 개발·이용하여야 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낙농 전업농은 앞으로 사육두수의 확대보다는 고품질의 원유 생산과 산유능력의 향상, 생산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생산기반의 확충을 통하여 소득을 증대하여야만 전업낙농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유제품시장의 개방화, IMF관리 체제하에서 우리 낙농업의 구조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낙농전업농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은 규모 확대와 시설 개선에 중점을 두어 추진되고 있고 그 동안 규모화에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는 보다 내실있는 낙농전업농의 소득 증대를 위한 경쟁력제고사업이 필요한 시기인 것이다.

전업낙농가들도 정부의 정책 지원에 의존하여 외형적인 규모화에 치중된 무리한 투자로 부실 낙농가로 전락되지 말고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경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㉞)

〈필자연락처 : 02-962-7312〉

〈표 2〉 국내 생산 조사료의 생산비 비교 (1997년 7월 기준)

구분	품목	TDN가격(원/kg)	대비(%)	비고
국내 생산	옥수수 사일리지	287	100	
	대맥 사일리지	301	105	
	답리작 이탈리안	332	116	
	목건초 386 134			
	볏짚	643	224	
수입 조사료	알팔파 큐브	562	196	
	라이그래스 짚	600	209	
농 후 사료	한우(크소비육)	360	125	
	젖소(비육초기)	394	137	

\* 자료: 축산기술연구소(1997), 농림부 조사료 확대 생산 추진대책(1997)